

코로나19 대유행 이후 112신고 변화 분석

코로나 19의 발생 전후 112신고 추이 변화를 분석 ⇨ ①대부분의 신고가 예년보다 줄어든 가운데, ②유형별로는 자살은 증가하고, 절도, 폭력, 성폭력, 사기 등은 감소 ③시기별로는 주로 코로나 대유행 기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될때 증가 ④지역별 : 서울·경기·대구·경북이 상대적으로 감소

I 연구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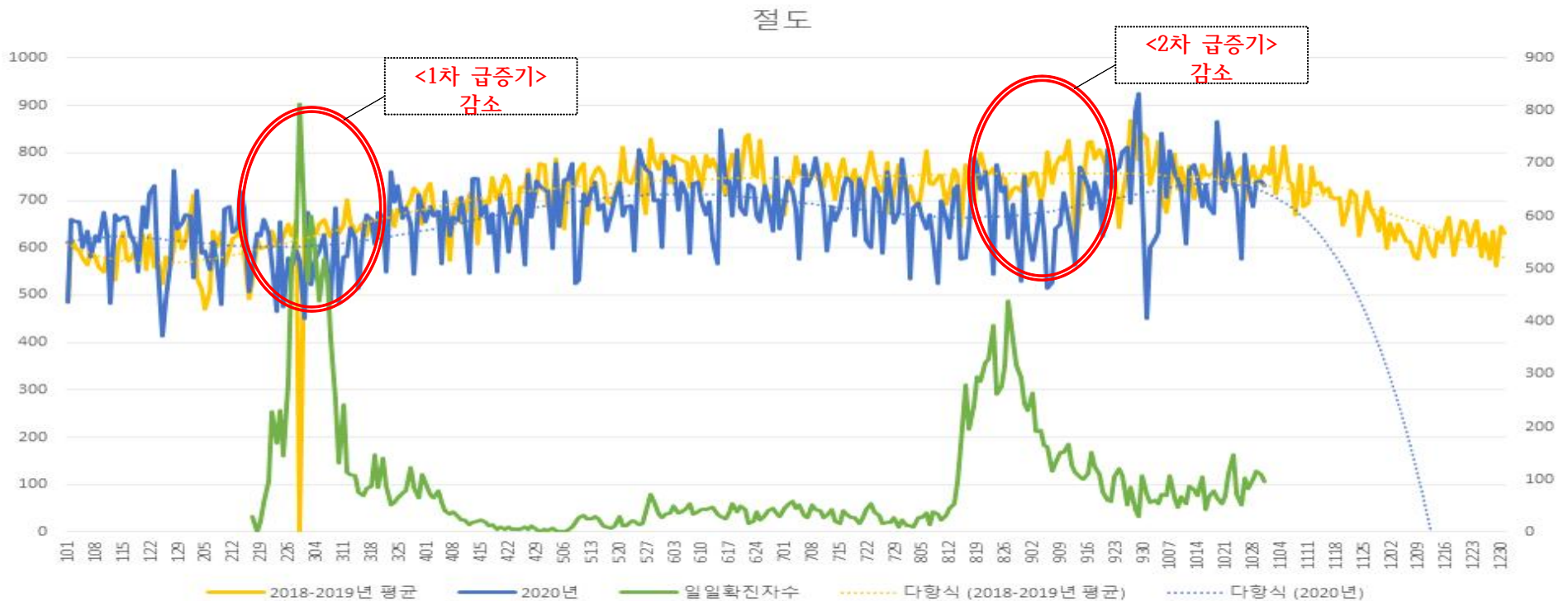
- 분석 대상 : 살인, 강도, 폭력, 절도, 가정폭력, 성폭력, 데이트폭력, 사기, 교통사고, 자살 10개 유형
- 대상데이터 : 112신고 데이터('18~'20년 10월) ※ 경찰청 치안상황실, 데이터·자료 협조
- 분석 방법 : '18년 1월~'20년 10월 까지의 112신고량과 코로나19 확진자 수 비교
- 연구 기간·방법 : '20. 8월~12월, ※ 경찰청 치안상황실, 데이터·자료 협조
- 연구자 : 치안정책연구소 장광호·임운식 / 형사법무정책연구소 박형민

II 분석 결과

□ 범죄 유형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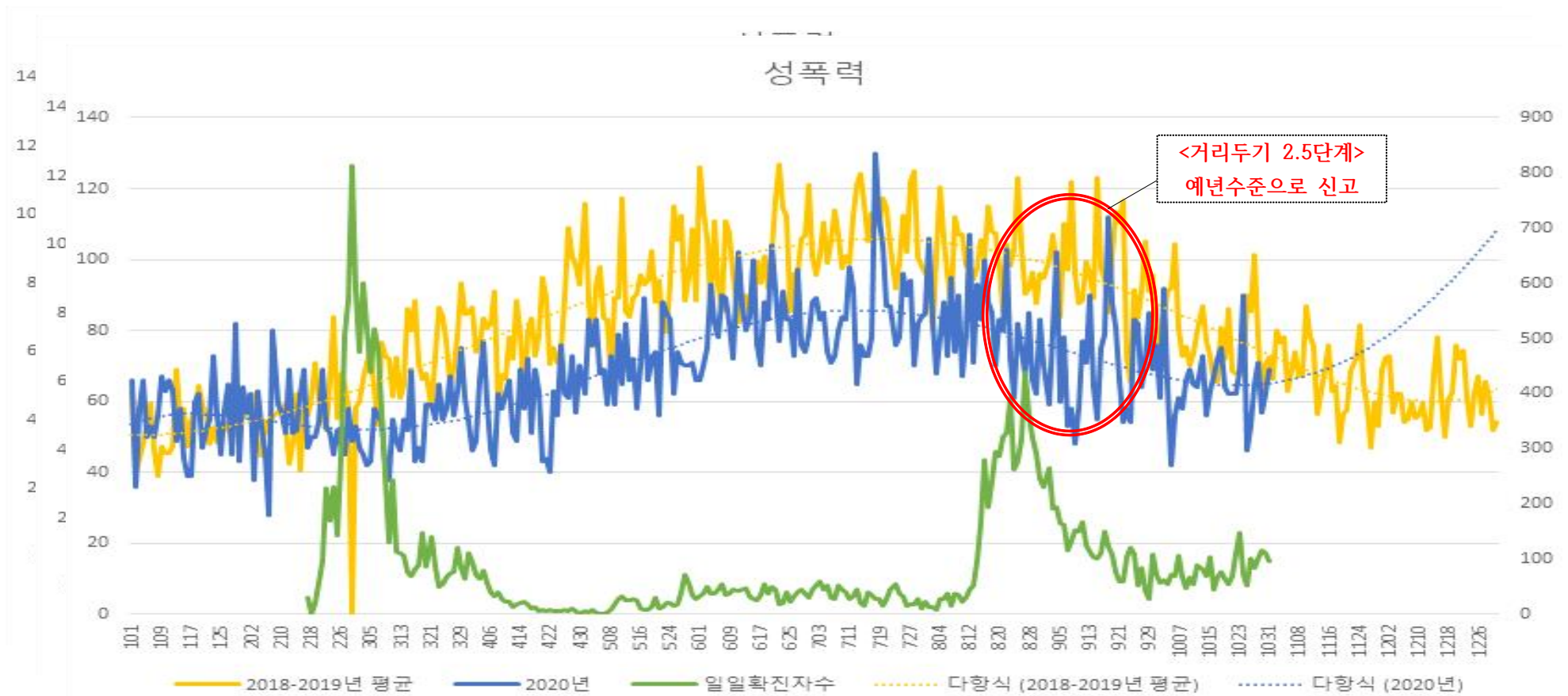
○ 살인·강도 : 신고량이 적고, 감소세여서 코로나 영향 파악 어려움

○ 절도 : '18년 후 코로나 以前인 '20년 2월까지 증가(↑22.38%)하다 감소(3월 ↓36.7%, 4월 ↓30.17%, 1~2차 급증기에 감소 차이(8월 ↓69.32%, 9월 ↓65.38%)가 뚜렷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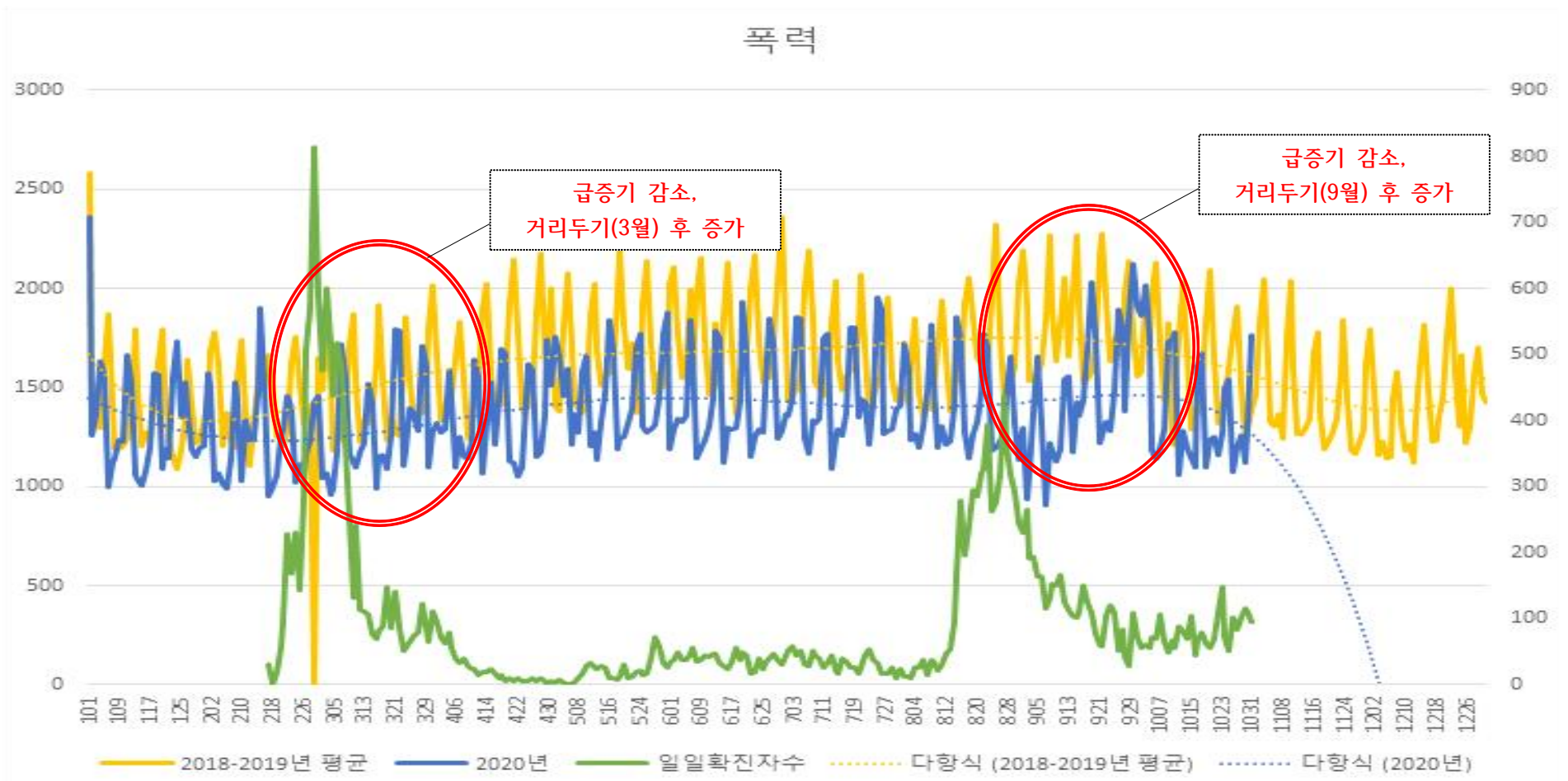
○성폭력

- 지난 3년간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기간에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특징
- 코로나19 발생하기 전인 '20년 1월1일~2월12일에는 증가(2.95%↑) 예년과 유사한 모습이었으나, 1차급증기 직후인 4월(22.10%↓)과 2차 급증기 직후인 9월에는(25.32%↓)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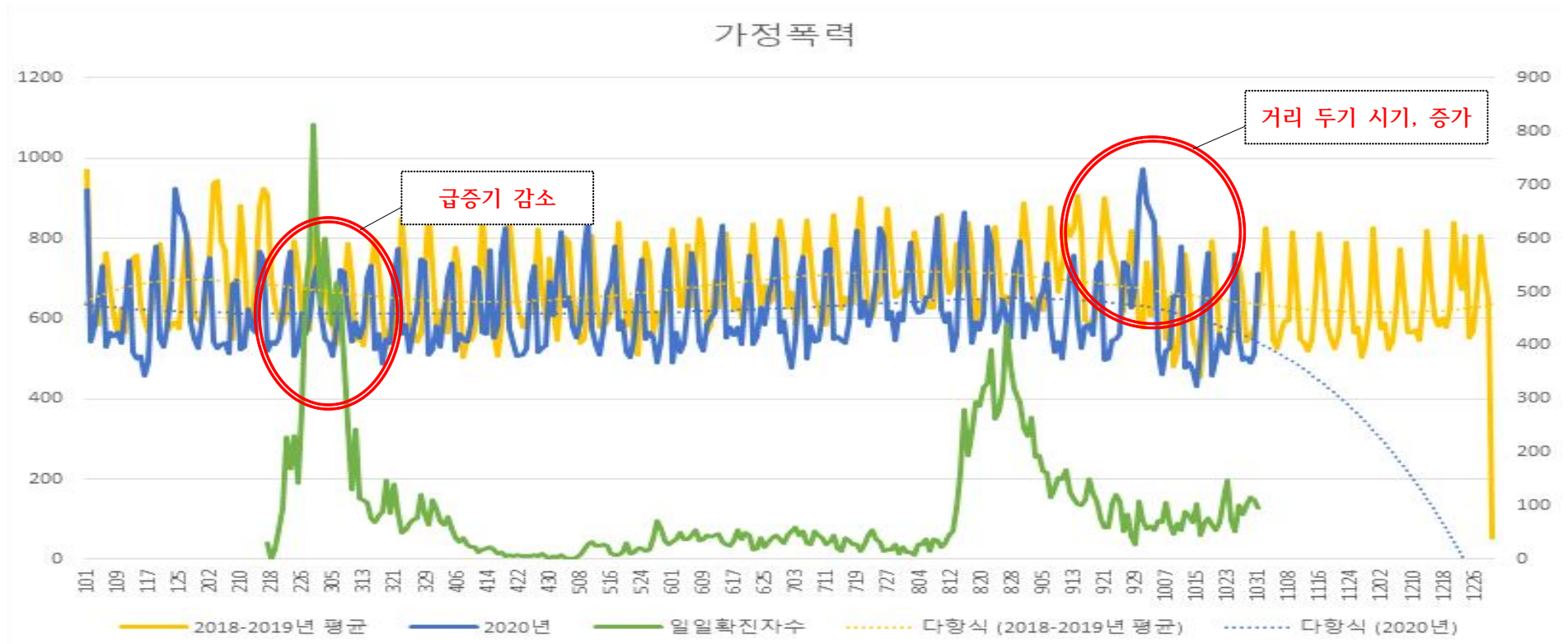
○ 폭력

- 예년보다 감소했고, '20년 2차 대유행기 8월(248.68%↓)과 9월(413.32%↓)에는 예년보다 급감
-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시기인 9월 28일~10월 11일 감소했으나(108%↓) 예년과 차이가 가장 적음



○가정폭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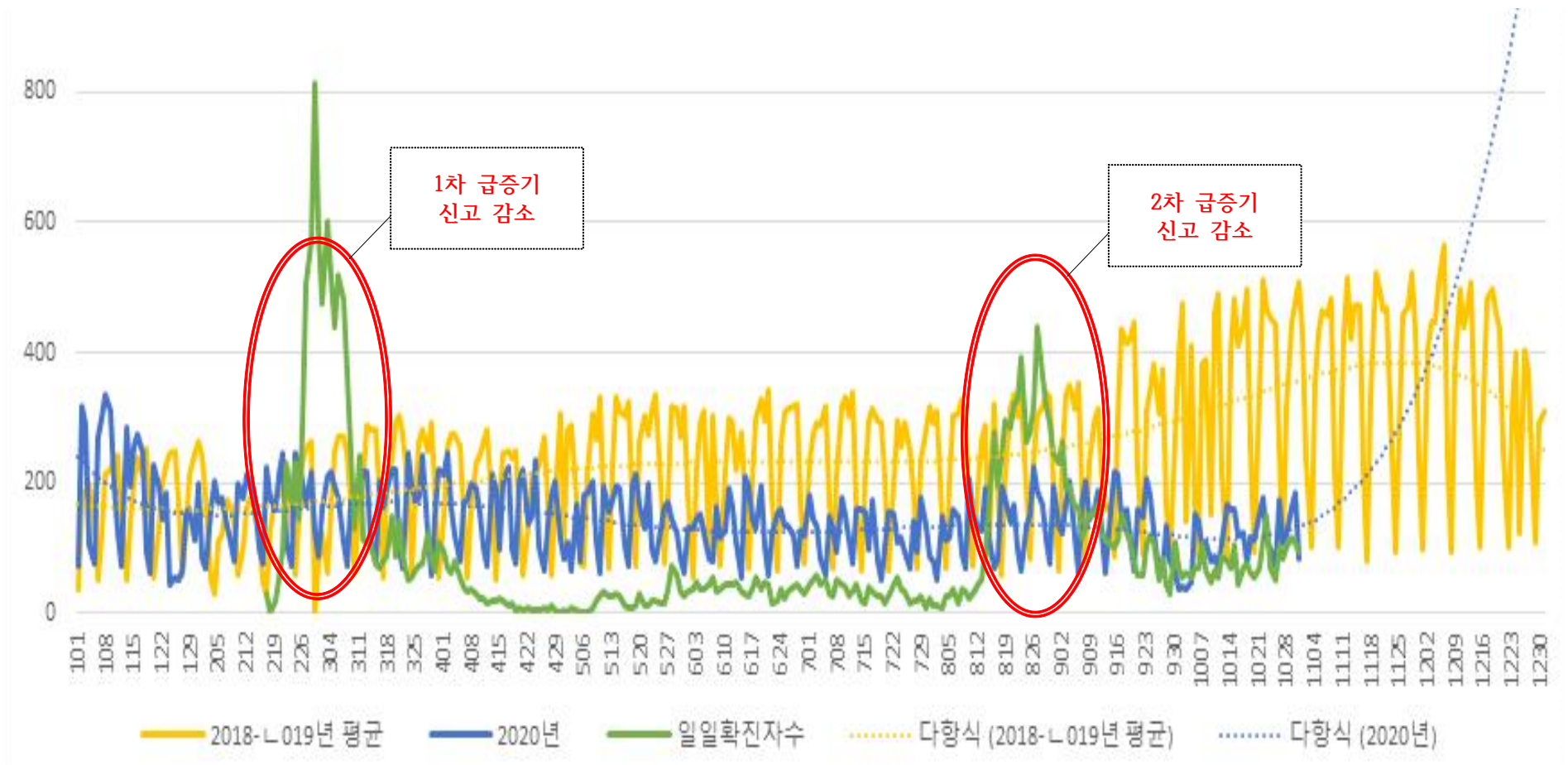
- 예년보다 다소 적었으나,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('20년 9월 28일~10월 11일)에는 51%↑ 증가
- 코로나 급증기에는 전년보다 적게 발생하고,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예년보다 증가



○데이트폭력 : 지난 3년간 증가해왔고,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비슷한 패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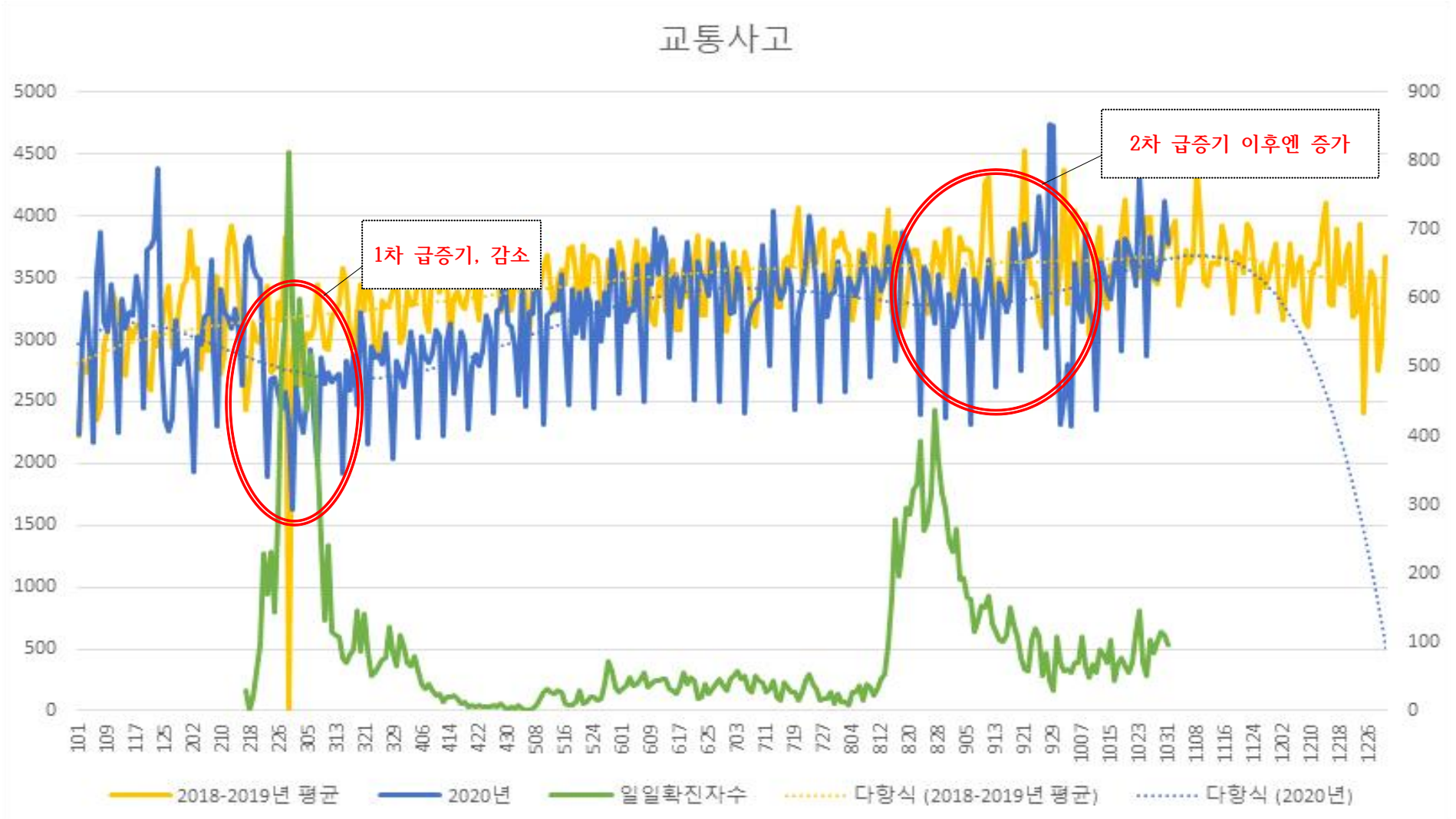
※ 데이트폭력이 새로 생긴 신고유형이므로 계속 증가하는 경향도 있고, 연인간 폭력은 코로나와 영향이 적은 경향

○사기 : 지난 2년간 증가했다가 '20년은 조금씩 감소, 2월(22.41↑)까지 다소 높았으나 2월말 이후부터 조금씩 감소, 2차급증기 이후인 10월(234.02↓)감소폭이 커서, 거리두기의 가능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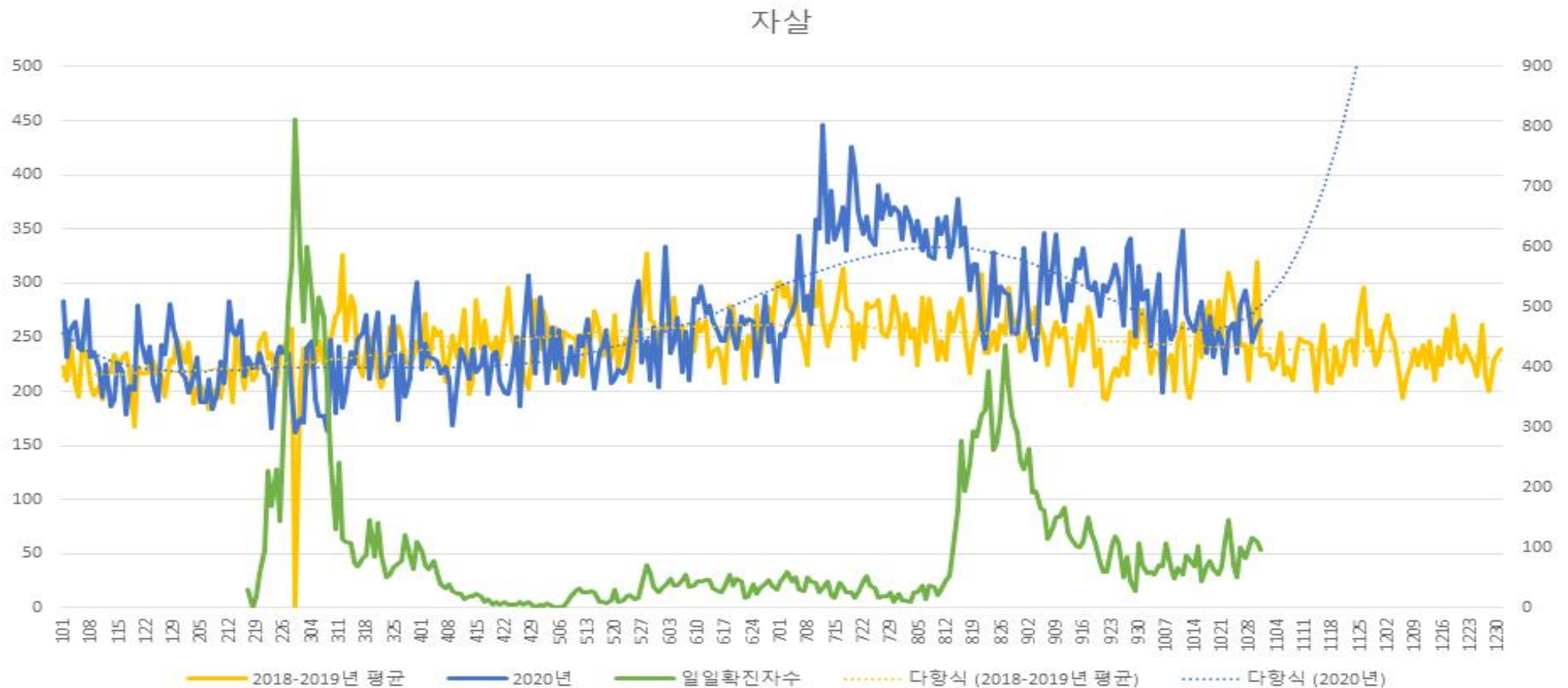
○ 교통사고 : 1차 유행기인 2월(150.59%↓) 감소했으나, 10월에는 오히려 소폭 증가(2.4%)

※ 1차 급증기 교통량이 줄었다가, 차량 교통은 회복하고, 대중교통 기피는 계속되면서 교통사고 신고 증가 가능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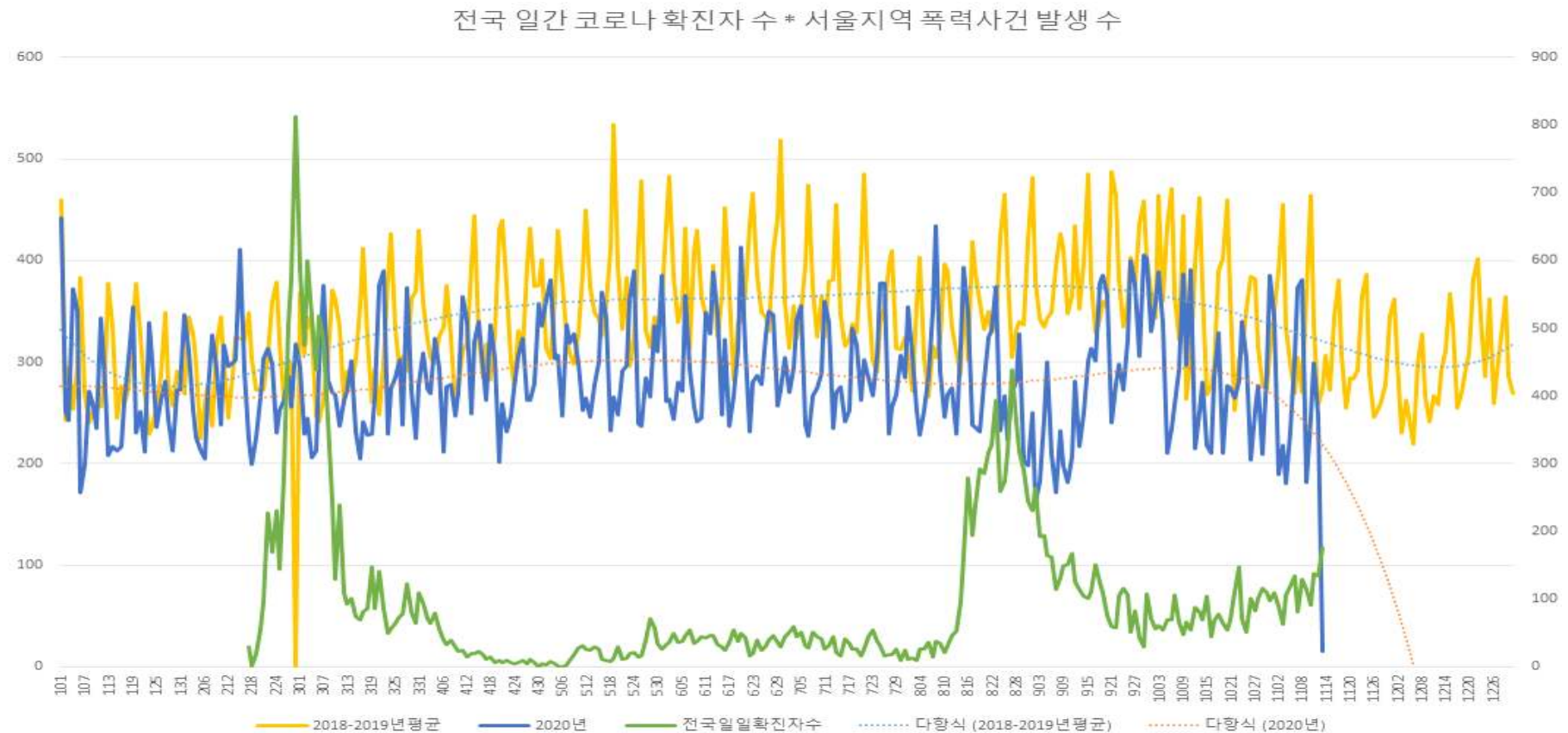
○ 자살 :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7월부터 급증(69.58%↑), 2차 대유행기인 8월 16일~9월 27일 (48%↑)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(9월28일~10월 11일) 모두 큰폭으로 (44%↑)증가

※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고립감·실업난 등으로 인한 우울증 등 ‘코로나 블루’ 현상 제기



□ 지역별 추이

- 대부분의 지역이 전체적인 추세와 비슷함. 서울·경기·대구·경북의 폭력사건은 他 지역보다 감소
- 위 지역은 코로나 발생이 많았기에 인구 이동이 적었고, 가장 밀접한 폭력신고가 줄었을 가능성



III

결 어

□ 결과 요약

- 전체적으로 신고량 감소
- 유형별 증감 : 자살(7월부터 크게 증가) △ 감소 : 절도, 폭력, 성폭력, 사기
- 영향 여부 불투명 : 가정폭력(계속 감소세), 살인·강도(표본 적음), 데이트 폭력 (예년과 비슷)
- 시기별 증감 : 가정폭력·폭력·성폭력(급증기 ↓ 거리두기 시 ↑), 사기(급증기·거리두기 시기 ↓) 교통 사고 (1차 유행기 177%↓, 2차 유행기 288%↓)
- 지역별 : 서울·경기·대구·경북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폭력 신고 감소

□ 연구 한계 : 112신고 데이터는 중복·오인신고 등이 있어 공식 통계보다 경향성 분석에 활용

□ 향후 계획 :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있으므로 이번의 연구 결과(~20년 10월 데이터 사용) 이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가 분석을 계속 진행